

内 部 资 料

연변조선족자치주도서관학회
延边朝鲜族自治州图书馆学会

문집
論文
(1)

연변조선족자치주도서관학회편
延边朝鲜族自治州图书馆学会编

1984年7月

前 言

在党的民族政策的光辉照耀下，我州图书馆事业蓬勃发展，尤其是党的十一届三中全会以来，我州图书馆工作日新月异，面貌可观，令人欢欣鼓舞。广大图书馆工作者为促进图书馆现代化建设，钻研业务，努力工作并写出了不少论文。我们从党的十一届三中全会以来写出的论文中选取五十篇，十七万字，汇编成本论文集。选取的论文中，有的参加过《中国图书馆学会第三次科学讨论会》、《全国少数民族地区图书馆工作座谈会》、《全国图书馆法学术讨论会》、《全国少儿图书馆学术讨论会》、《东北地区图书馆学讨论会》、《吉林省图书馆学会第二、三次科学讨论会》以及《吉林省高校图书馆第二次科学讨论会》。这些论文有的分别发表在《图书馆学研究》、《儿童图书馆》、《吉林省高校图书馆通讯》等刊物上。这是我州各类型图书馆工作者在党的光辉照耀下所取得的可喜的科研成果。

本论文集根据我州民族特点，为满足广大朝鲜族图书馆工作者的需要，把已用汉文发表过的文章译成朝鲜文登载。

为了便于参考查阅，按论文主题，分为六大类：

- 一、图书馆事业建设；
- 二、图书馆人才培养；
- 三、藏书建设与编目工作；
- 四、读者工作研究；
- 五、期刊与情报工作；
- 六、少年儿童图书馆工作；

凡有论文提出者，一律在文章最后以“（ ）”加以注明论文出处。

编 者

目 录

一、我国图书馆事业建设

1. 연변 공공도서관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 힘쓰자.....연변도서관 최창래, 박수남 (1)
(努力开创延边公共图书馆事业的新局面).....延边图书馆 崔昌来, 朴秀南
2. 일본의 도서관법에 관하여.....연변대학도서관 남윤근 (6)
(关于日本的图书馆法).....延边大学图书馆 南润根
3. 우리 나라 소수민족지구의 도서관건설에
대한 약간의 견해.....연길시소년아동도서관 허죽송 (7)
(浅谈我国少数民族地区图书馆事业
的建设).....延吉市少年儿童图书馆 许竹松
4. 尊重知识, 必须重视图书馆事业.....延边农学院图书馆 金振洙 (14)
5. 浅谈我院马列主义资料室归到图书馆以后的
几点体会.....延边农学院图书馆 黄正姬 (17)
6. 试论农村图书馆(室)工作与其社会作用.....龙井县图书馆 池永哲 (22)
7. 略谈日本现代发展和图书馆法.....延边大学图书馆 南润根 (26)
8. 简论民族地区图书馆立法的根据、
原则与内容.....延吉市少年儿童图书馆 许竹松 (30)
9. 龙井县图书馆简史.....龙井县图书馆 金凤仙 (35)
10. 龙井县农村图书室的现状及其发展方向.....龙井县图书馆 崔英哲 (37)
11. 我们是怎样开展对基层图书室辅导工作的.....龙井县图书馆 金青锡 (38)
12. 谈县(市)图书馆建立业务、辅导档案.....龙井县图书馆 池永哲 (40)

二、图书馆人才培养

1. 急样当好县, 市图书馆馆长.....图门市图书馆 鲁德山 (42)
2. 函授教育是开发智力, 培养人才的重要途径
——谈图书馆函授学习的几点体会.....延边图书馆 许竹松, 金顺今 (46)
3. 浅论中、小型图书馆业务辅导人员的素养.....延边图书馆 魏凤英 (49)

三、图书馆藏书建设与编目工作

1. 고등학교도서관에서 교수참고서목록을
건설할데 대한 약간의 건의.....연변대학도서관 임정권 (52)
(高校图书馆建立教学参考书目录的若干建议).....延边大学图书馆 任正权
2. 우리 도서관 목록체계의 현 상태 및
그의 관리에 관하여.....연변대학도서관 정치혁 (56)

- (关于我馆目录体系及其管理).....延边大学图书馆 郑致赫
3. 浅述专业图书馆藏书建设工作延边农业科学研究所 李京淑 (59)
4. 关于著者号码的基本规律延边大学图书馆 郑昌权 (62)
5. 浅谈朝鲜文书名目录组织问题延边图书馆 李莲玉 (65)
6. 分类工作中想到的延边农学院图书馆 刘惠英 (66)
7. 谈谈编制推荐目录的基本要求延边图书馆 许 静 (68)
8. 日文图书书名目录组织和日文图书汉字著录初探延边图书馆 李莲玉 (71)

四、图书馆读者工作研究

1. 공공도서관대출처에서의 독자사업에 대하여.....연변도서관 최순애 (73)
(关于公共图书馆借书处的读者工作)延边图书馆 崔顺爱
2. 浅谈读者阅读报刊的兴趣.....延边大学图书馆 金顺姬 (78)
——读者心理学研究对象
3. 做好读者工作, 使馆藏书更好地为
教学科研服务延边医学院图书馆 白莲旭 (81)
4. 积极为生产、科研服务是开创图书馆工作
新局面的重要一环.....图们市图书馆 鲁德山 (83)
5. 我们对科技服务工作的几点体会延边图书馆 朴秀南 (88)
6. 试论高等农业院校图书馆为农业
生产服务问题延边农学院图书馆 金振洙 (90)
7. 试论专业院校图书馆的社会服务工作.....延边农学院 金承郁 (94)
8. 为广大农民服务, 发挥馆藏书刊在农村两个
文明建设中的作用.....敦化县图书馆 (98)
9. 浅谈资料员如何当好教学科研的
助手和参谋延边大学马列教研部资料室 张淑环 (101)
10. 商论“双卡制”与“单卡制”借书制度延边医学院图书馆 白莲旭 田淑喜 (104)
11. 广泛地开展健康有益的活动, 自觉地
抵制和防止精神污染敦化林业局工会图书馆 (106)

五、图书馆期刊与情报工作

1. 잡지편목에서의 몇가지 문제.....연변대학도서관 김경자 (111)
(期刊编目的若干问题)延边大学图书馆 金京子
2. 연변농학원 도서관에서는 농업생산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연변농학원도서관 김승욱 (113)
(延边农学院图书馆为农业生产服务)延边农学院图书馆 金承郁
3. 开设情报检索课是提高科技情报吸收能力的
根本措施.....延边医学院图书馆 金同淳、安贞兰、金英子、甄莲华 (119)
4. 试论高等农业院校图书馆的科技
情报服务工作延边农学院图书馆 金承郁 (124)

5. 情报服务工作的一点做法和体会 延边农学院图书馆 金英淑, 金今松 (130)
6. 高等农业院校图书情报工作应为农业生产服务 延边农学院 金振洙 (134)
7. 试谈如何开创高校图书情报工作新局面 延边农学院图书馆情报室 马英金 (139)
8. 谈谈期刊排架法 延边医学院图书馆 安贞兰, 金同淳 (142)
9. 谈谈农业院校图书馆工作情报化——我馆科技情

报服务工作的认识和实践 延边农学院图书馆 金承郁, 马英金 (146)

- 10 试论高等院校图书馆图书情报一体化 延边农学院图书馆 金振洙 (152)

11. 参照国外图书馆的经验, 改进我馆

期刊著录的体会 延边大学图书馆 金京子 (155)

六、少年儿童图书馆工作

1. 전 사회적으로 소년아동도서관사업을

중시해야 한다 연길시 소년아동도서관 허죽송 (158)

(全社会都要重视少儿图书馆事业) 延吉市少年儿童图书馆 许竹松

2. 要办好少数民族地区中、小学图书馆 延边图书馆 朴秀南 (163)

3. 做好少儿阅览工作是我的光荣职责 珲春县图书馆 朴海淑 (168)

4. 对延吉市中小学图书馆(室)的调查报告 延吉市少年儿童图书馆 (171)

5. 试论我国少年儿童图书馆(室)的特点 延吉市少年儿童图书馆 许竹松 (173)

6. 我们是怎样开展少年儿童阅览工作的 和龙县图书馆 (178)

연변 공공도서관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 힘쓰자

연변도서관 최창래, 박수남

조국의 동북변방에 자리잡고있는 우리 연변은 조선족이 집거하는 구역으로서 조선족이 전 주 인구의 48%를 차지한다.

1952년에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성립된이래 연변의 공공도서관사업은 없던데로부터 있게 되었으며 규모가 작던데로부터 아주 큰 발전을 가져왔다. 지금 연변의 8개현(시)에는 모두 공공도서관이 있다. 새로 세운 연변도서관은 총면적이 5,200평방미터로서 열람창사는 82년 12월에 착성되어 사용하고있다. 금년 5월 25일에는 연길시 소년아동도서관이 개관의식을 가지었는데 이는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길림성에서 첫번째로 되는 순수한 소년아동도서관인것이다. 1982년 중앙문화부에서 도문시에 도서관창사를 지으라고 4만원의 자금을 비준해 주어 금년에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다. 1982년의 통계를 보면 연변의 9개 도서관의 총면적은 4,762평방미터이며 54만2천여책의 장서와 121명의 사업일군을 두고있다. 금년초에 길림성인민정부에서는 연변도서관의 사업인원을 57명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전 성 48개 공공도서관가운데서 네번째로 되는셈이다. 이 모든것은 연변의 도서관사업에 대한 당과 정부의 배려인바 연변의 공공도서관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려면 부지런히 사업하여야 할뿐만아니라 일련의 새로운 과제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민족적특점을 가진 공공도서관을 건설해야 한다.

연변은 우리 나라에서 유일한 조선족자치주이다. 연변의 공공도서관사업은 단지 연변지구의 도서관사업에 관계될뿐만아니라 우리 나라 전반 조선족문화사업에 관계된다. 때문에 연변의 공공도서관은 우리 나라의 조선족 문화유산과 도서관헌을 저장하고 보존하는 중심으로 되어야 하며 조선족의 문화연구와 교육의 중요한 진지로 되어야 한다. 이점이 바로 연변의 공공도서관이 기타 고등학부도서관과 구별되는 점이다.

연변의 공공도서관은 마땅히 조선족문헌자료와 국외의 가치있는 조선문도서자료를 전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하고 조선문도서를 중심으로 한 장서체계를 점차 건립하여 자체의 민족적특성을 형성해야 한다.

연변도서관은 문화대혁명전부터 조선족문헌자료수집에 주의를 돌려 28,000여책의 조선문도서를 저장하였었다. 현대 10년 동란을 거친 오늘에 와서는 거진다 없어지다싶이 되어 조선족문헌자료의 수집사업은 한시도 지체할수 없는 급선무로 되고있다. 최근

우리는 이미 중앙의 관계부문에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 산하에 조선족문헌자료수집소조를 내올것을 진의하였다. 이 소조는 조선족의 정치, 경제, 문화, 력사, 민속, 과학기술 등 방면의 문헌자료를 전문 수집하되 1985년전으로 해방전에 출판된 문헌에 대한 수집사업을 끝맺고 《7차5개년》기간에 해방전후의 문헌에 대한 수집사업을 전부 완성하여 연변도서관에 맡겨 정리, 저장하게 할것이다.

11기3중전회이후 각 공공도서관에서는 해마다 증가되고있는 조선문도서에 대한 수집사업을 강화하고있다. 연변도서관 구입세칙에는 《조선문 서적과 간행물을 전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수집하며 관내의 장서건설에서 조선문장서건설을 제일 중요한 위치에다 올려놓고 조선문장서체계를 점차적으로 보다 완전하게 건립해야 한다. 조선문도서는 경전저작, 귀중한 공구서적 및 그림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섯책이상씩 구입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연변도서관에는 지금 장서가 30만책에 달하는데 그중 조선문장서는 4만책으로서 총장서수의 13.3%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앞으로 조선문장서비례를 대폭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조선문서고를 따로 세우려고 한다.

지금 중국과 조선사이의 문화교류는 날로 발전을 가져오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도서교류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나라 조선족문화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으며 그 조건도 보다 성숙되고있다. 1955년에 연길시도서관은 조선 평양국립도서관과 도서교환관계를 맺어 1955년부터 1960년까지 평양국립도서관에서 연길시도서관에 도서 800여책을 증송하였었다. 우리는 중앙관계부문에서 연변의 공공도서관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부 도서관들 사이에 도서교환관계를 정식으로 맺도록 하여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변공공도서관의 장서건설을 힘있게 촉진하고 중조 두나라의 문화교류사업도 더한층 발전을 가져오게 될것이며 중조 두나라 인민간의 친선도 더욱 두터이 할수 있게 될것이다.

장서건설은 반드시 과학적관리를 토대로 해야 한다. 이 몇년래 연변 각 공공도서관의 분류, 기입, 편목, 서가배렬 등 기본적인 실무사업수준은 모두 일정한 제고를 가져왔다. 도문시도서관과 화룡현도서관의 기본실무정돈사업은 전 성 공공도서관연합집사가운데서 효평을 받았다. 그러나 연변도서관의 장서건설과 과학적관리에는 아직도 일정한 문제들이 존재하고있다. 특히는 조선문으로 된 서적과 간행물에 대한 분류, 편목 등 면에서 아직도 통일적인 기준과 규칙이 없어 서로 제멋대로 하고있는데 이는 도서관사업이 표준화와 규범화에도 나아가는데 영향을 끼치고있다. 그러므로 연변의 특점에 알맞는 도서관학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적극적으로 독자들을 위해 봉사하며 생산과 과학연구사업에 봉사해야 한다.

《독자제일》, 《용호제일》은 도서관사업의 종지이다. 공공도서관은 사회의 광범한 독자들을 상대로 사회적사상교양을 진행하고 과학문화지식을 전파하며 생산과 과학연구사업을 위해 봉사하는 임무들을 짊어지고있다.

몇년래 연변 각 공공도서관들에서는 열성적으로 독자들을 위해 봉사하여왔는데 82년도에 9개의 공공도서관에서 접대한 독자수는 118,000명에 달하고 도서의 차수는 148,000책에 달하였다.

도문시도서관은 매주일 57시간씩 개관하여 전 수의 공공도서관가운데서 개관시간이 제일 긴 도서관으로 되었다. 그들은 1982년에 대출증 940개를 발급하여 접대한 독자수는 18,328명이 되고 빌려준 책의 차수는 21,258책이나 된다. 이 도서관열람실에는 열람석 44개가 마련되어 있어 1982년에 접대한 독자수만 해도 33,154명이나 된다. 그들은 과학기술도서전람을 꾸렸으며 공장, 광산, 기업소와 농촌에 내려가 생산과 과학연구정황을 알아보고 주동적으로 책을 보내주어 각급 지도부와 과학기술일군, 그리고 광범한 군중들의 호평을 받았다. 1982년에 그들은 공장과 농촌에 153일이나 내려갔고 중점적으로 13개 단위의 생산과 과학연구를 위해 봉사한데서 오래동안 밀져오던 일부 기업소들이 리운을 보게 되었으며 이때 과학연구항목들도 시험성공하게 되었다. 도문시 제2비닐공장에서 생산하는 박막머는 질이 낮아 계속 밀져오고있었다. 이 형편을 알게 된 도서관동무들은 그 방면에 관계되는 대량의 기술서적들을 제공하여주는 한편 길림성도서관 등 단위를 통해 《판박막 및 복합박막의 형성》 등 도서자료 10여부를 빌려다주어 그들이 기술난관을 극복하고 질문제를 해결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달마다 2톤씩 증산하고 메톤의 원가를 30여원이나 낮출수 있게 하였다. 《F003랭교방수도로》는 국가 과학위원회에서 도문시 뽕끼공장에 맡긴 중점연구항목이다. 그들은 연구제조과정에 일어터지는 문제와 고온에 견디지 못하는 문제에 부닥쳤다. 이 사정을 알게 된 도문시도서관에서는 상호대출의 방법으로 기술일군들이 요구하는 자료 20여부나 얻어주어 기술면에 걸리는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였다. 지금 《F003랭교방수도로》는 정식으로 생산에 투입하였는데 해당부문의 감정결과 여러 방면의 질적지표가 모두 국가표준에 도달하였다. 지금 이 제품은 공급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공장의 지도자들은 여러번 도서관에 찾아와 《동무들이 우리 공장을 살려주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감사를 드리였다. 몇년동안 도문시도서관은 공장, 광산, 기업소와 농촌에 많은 기술서적들을 공급하여 몇십가지 과학연구항목의 기술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도록 하였다. 그들은 길림성문화계통의 선진단위로 당선되었으며 금년에는 전 성 공공도서관연합검사평의회에서 일등을 하였다.

화룡현도서관은 열람실면적이 43평방메터밖에 안된다. 그들은 일상적인 열람사업을 잘 하는외에 소년아동열람사업도 적극적으로 벌리였다. 1982년만 해도 그들은 소년아동도서 5,050책을 사들였고 소년아동열람증 250장을 발급하였으며 매주 나흘반씩 소년아동의 열람을 조직하였다. 그들은 더욱 많은 어린이들에게 과외도서를 보여주고 농촌의 어린이들이 책보기가 곤난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도서류동합 다섯개를 만들어 책을 농촌, 산골어린이들에게 갖다주어 산간벽지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1982년 그들이 책을 송달한 차수는 15차이고 권수는 2,237책이며 열람자는 4,000명에 달하였다. 그들은 또 과외지도실 9개를 건립하고 각 소학교를 도와 도서관을 꾸려 책을 보게 하였다. 그들이 조직한 독서보고회, 랑송회, 지력경쟁 등 활동은 사회의 호평과 각급 지도부의 중시를 받고있다. 화룡현도서관은 1982년에 전국 《붉은벡타이독서메달활동》의 선진집단으로 되었고 금년에는 주 선진도서관, 화룡현의 《5강4미》선진단위로 되었으며 금년도 전 성 공공도서관사업연합검사평의회에서 2등을 하였다.

훈춘현도서관 박해숙(조선족)동무는 다년간 소년아동열람사업을 부지런히 하여왔는데 1982년에 전국 소년아동열람사업선진일군으로 당선되었다.

돈화원도서관도 장기간 열성적으로 일반독자와 소년아동독자들을 위해 봉사하여왔다. 그들은 실무보도를 강화하여 전 성에서 처음으로되는 향 도서관——한장향도서관을 꾸려주었다. 돈화원도서관은 여러차례나 현 선진단위로 되었고 도서관당지부도 현 문교계통선진당지부로 평선되었다.

연변의 공공도서관들에서는 독자를 위해 봉사하고 생산과학연구를 위해 봉사하는 면에서 적지 않은 일들을 하여 왔으며 일정한 성적들을 거두었다. 그러나 독자들의 수요와 요구에 비길 때 아직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 생산과 과학연구를 위해 봉사하는 면은 아직도 박약한 고리로 되어있고 소년아동열람사업도 계속 강화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한마디로 네가지현대화건설의 수요에 발맞추자면 장기간의 간고한 노력과 힘을 기울려야 한다.

덕재가 겸비한 도서관사업 전문대오가 있어야 한다.

연변의 도서관사업대오는 당의 민족정책의 배려와 성위와 주위의 중시하에서 신속히 자라나 초보적인 전문간부대오를 형성하였다.

지금 연변의 각 류형 도서관(실)에서 종사하는 일군들은 도합 1,482명인데 그중 전직인원이 647명이고 겸직인원이 835명이다. 몇년래 우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서관실무일군을 양성하였다.

1. 평시의 사업실천과 학습을 통해 실무수준을 높였으며 전수하고 도와주며 이끄는 방법으로 로관원이 신관원을 양성하였다.

2. 여러가지 류형의 단기 실무훈련반을 꾸렸다. 이것은 간편하고 효과가 빠른 방법으로서 층층마다 꾸릴수 있다. 1978년부터 1982년까지 9개소의 공공도서관에서 각종 실무훈련반을 20여차나 꾸렸으며 형식도 다양하였다. 농촌도서관리원훈련반, 학교계통도서관리원훈련반, 공장기업소계통도서관리원훈련반 등을 꾸릴수 있으며 수집편목일군, 독자사업일군, 보도일군 등 전직훈련반도 꾸릴수 있다.

3. 통신학습에 적극 참가하였다. 전 주 공공도서관의 실무일군가운데 북경대학 통신학부 도서관강좌의 졸업생이 3명(조선족 2명)이 되고 성도서관 통신학교 졸업생이 25명(조선족 9명)이나 된다. 이들은 이미 각 도서관의 실무팔간으로 되었다.

4. 매주 실무학습일제도를 건지하여 종업원들의 도서관실무학습과 외국어학습을 계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연말에 통일적으로 시험을 쳐서 간부를 고찰, 등용하는 의거로 삼는다.

5. 필요한 전학을 조직한다. 주로 주내에서 조직하고 성내의 형제도서관에 보내여 그들의 선진경험을 학습하게 한다.

6. 도서관학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전개하였다. 1978년이래 우리 주 도서관계에 서 전국성적인 학술활동에 참가한 동지가 3명인데 논문 4편을 써냈다. 동북3성 학술활동에 참가한 동지는 3명이고 성 학술활동에 참가한 동지는 32명으로 논문 29편을 써냈다. 지금 우리 주 도서관계에서는 도서관학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학술적분위기가 점차 형성되고있다. 이와 동시에 정치상에서 그들의 성장을 관심하고 배양하여 비교적 빠른 진보를 가져왔다. 이를테면 전 주 9개소의 공공도서관에 현임지도간부(정, 부, 지부서기와 정, 부관장)14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조선족이 9명으로서 60.4%를 차지한다. 이는 조직에서 우리 조선족간부에 대한 양성과 배려인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사업의 발전과 수요에서 볼 때 지금의 간부대오는 그리 이상적이 되지 못하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대어 간부대오의 소질을 진일보로 높여야 한다.

1. 반드시 지금의 지도성원들이 로년화와 문화수준이 낮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간부의 《4화》요구에 쫓아 지도성원은 조절해야 한다. 현(시)도서관의 관장은 정관장, 부관장 각 1명으로 하고 실무관장(주 도서관의 부주임을 포함)은 실무물간인원이 맡아야 하는 동시에 관원급의 직함을 가져야 한다.

2. 재직간부의 실무훈련사업을 틀어쥐어야 한다. 주로는 통신학습, 훈련반 등 도경을 통하여 2~3년내에 지금의 재직실무간부를 한번씩 훈련시켜야 한다. 금후에는 성, 주문화간부학교에서 이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3. 조선족실무간부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 우리는 북경대학 도서관강좌에서 소수민족반을 꾸리거나 중앙민족학원에다 도서관강좌를 꾸릴것을 건의한다. 그리고 문화부 도서관사업관리국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내의 도서관실무관장들로 구성된 고찰단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보내어 견학시킬것을 요구한다.

4.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종업원들에게 경상적으로 지구적으로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교양과 《5강4미》, 《3열에》 교양 및 직업도덕교양을 진행하여 종업원들로하여금 도서관사업의 성질과 임무를 똑똑히 알게 하며 맡은 사업을 열애함으로써 진정 네가지현대화건설을 위해 봉사하는 도서관실무인재로 되게 하여야 한다.

(길림성《도서관학연구》1984.2기에 실렸음)

(6페이지에서)

결과 《도서관법》이 탄생되었는바 1968년에는 수정된 《도서관법》이 반포되었다.

그중 제1조에는 도서관법을 제정하는 의거가 있는바 사회교육법에 근거하여 도서관법을 제정하였다고 규정되었다. 제2조에는 도서관의 정의에 대한 규정인데 도서관은 도서를 수집, 정리, 보존하고 자료를 기록하여 대중들에게 리용되게 함으로써 그들의 교육과 조사연구 및 정보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고 하였다. 제6조에는 도서관사업인원에 대한 직함, 자격, 대우, 및 훈련실시 등 13개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공립도서관관장의 자격에 관한 조례도 있다. 이 조항에 관장은 반드시 사서자격이 있는 1~3년이상 도서관사업 실천경력이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제14조에는 공립도서관내에 도서관협회를 설치하고 교육위원으로부터 위원을 임명한다고 규정되었다.

이상에서 말한 일본의 《도서관령》과 《도서관법》은 일본정부의 도서관에 대한 법령으로서 일본정부의 정책에 적응하여 제정한것이다.

1910년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침범한 후 조선에 《철도도서관》과 《총독부도서관》등을 설치하고 일본의 도서관체제와 도서관법을 끌어들이었다.

1933년에 조선에도 관립(官立)과 공립, 사립도서관이 모두 52개나 있었다. 당시 관장과 대부분 직원은 일본사람이었으며 그들이 사용한 분류법들로는 십진분류법, 전개분류법, 및 일본십진분류법들이다. 또 실무인원들의 직함은 도서관주사(主事), 사서관, 사서, 보조사서, 서기였다.

남조선에서도 1963년에 제1424호 법령으로 《도서관법》을 반포하였다. 그러나 그의 체계, 내용, 술어 등은 모두 일본의 것들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길림성《도서관학회기간물》1980년 제2기에 실렸음)

일본의 도서관법에 대하여

연변대학 도서관 남윤근

현대 도서관사업의 발전에 따라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도서관사업의 문제에 대하여 국가의 법률형식으로 규정을 내오고있는데 이것이 곧 도서관법이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및 남조선 등 나라들에서는 도서관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있다. 일본은 봉건사회내부에서 성장하기 시작한 자본주의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발전이 상당한 정도에 도달한 후 현대도서관사업과 현대도서관사상이 점차 발전하였다.

1899년 처음으로 사령(敕令) 제429호로 《도서관령》을 반포하였다. 그후 또 《도서관령》이 반포되었다. 전후근대에 들어선 후 일본정부는 《도서관령》에 대하여 수정을 진행하여 1950년 4월 30일에 《도서관법》을 반포하였다. 일본도서관계에서는 이 도서관법의 반포를 기념하여 매년 4월 30일을 《도서관기념일》로 정하고 각종 활동을 진행하였다.

1899년에 반포된 《도서관령》은 모두 6개 조목이 있었으며 그후 소화 8년(1933년)에 반포된 《도서관령》은 모두 14개 조목이 있었다. 그중 제1조는 도서관정의에 관한 조례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즉 도서관은 도서를 수집, 기록, 보존하여 대중의 열람에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교육과 학술연구에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을 갖고있다. 제5조에는 법률상에서 개인들이 도서관을 꾸리는것을 용허하였다. 제6조에는 공립과 사립, 학교 및 박물관에서 모두 도서관을 세울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도서관의 설치 및 폐지에 유관된 권한에 대하여 규정을 지었다. 도(道), 부(府), 현(縣) 도서관의 설치 및 폐지는 문부대신이 비준하게 되었고 기타 도서관은 지방관리가 비준하게 하였다. 제10조에는 중앙도서관의 수축에 대하여 제정하였다. 일본에는 공립과 사립 두가지 종류의 도서관이 있는데 공립도서관가운데서 도, 부, 현 각급관리가 어느 한 도서관을 선택지정하여 문부대신에게 보고하고 비준을 받은 다음 그 도서관을 중앙도서관으로 결정하였다. 제11조에는 관장과 사서(司書), 서기(書記) 등등을 내올데 대한 규정을 지었다.

1950년에 반포된 《도서관법》은 《도서관령》보다 조례를 더 증가하였는바 현대 도서관의 사상을 반영하였다.

전후근대가운데서 일본 각지에 도서관과 도서관협회, 도서관연구회 등 단체들은 정황의 변화발전에 따라 그 수량 및 내용상에서 모두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고 있었다. 소화 21년(1946년)이래 선후로 군, 도, 현, 중앙도서관의 관장회의 각지 도서관의 대표회의, 공공도서관법 및 위원회활동 등이 있었다.

1950년도에 정부에서는 도서관법의 조례를 일본국회에 교부하여 심의하게 하였다.

(5페이지로)

우리 나라 소수민족지구의 도서관건설에 대한 약간의 견해

연길시 소년아동도서관

허죽송

등소평동지는 《조선족이 집거하는 길림성의 연변은 변강지구이며 조선족자치주로서 그 전략적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곳의 경제건설을 빨리 훌륭하게 발전시켜야 하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연변을 경제가 번영하고 문화가 발달하며 민족이 단결되고 변강이 풍요한 선진적인 자치주로 건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바로 소수민족지구도서관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도서관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로서 기타 문화사업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자리에다 올려놓고 중시를 돌려야 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소수민족지구 도서관사업이 걸어온 길.

소수민족지구 도서관사업을 더욱 잘 진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소수민족지구 도서관사업의 역사적정황을 료해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력대로 내려오면서 우리 나라 소수민족지구의 각족 인민은 변강땅에서 살아왔으며 빛나는 민족문화를 창조하였다. 그러나 해방전에는 제국주의와 봉건군벌들의 장기간의 통치로 말미암아 생산이 쇠퇴되고 인민들의 생활이 가난에 쪼들려 도서관사업이란 말하기가 어려웠다. 14년간이나 되는 일제의 통치시기에 우리 동북의 문화교육사업은 여지없이 짓밟혀 거의 회멸되다싶이 되었다. 당시 위간도성소재지인 연길시만 보더라도 일제는 조선족인민들에게 자기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억지로 일문과 일어를 배우도록 하였으며 각족 인민간의 모순을 조성하고 노화통치를 실시한데서 민족지구도서관사업이란 운운할 여지조차 없었다.

전국이후 우리 나라 소수민족지구의 도서관사업은 당과 정부의 배려와 민족정책의 빛발아래 또한 민족지구의 경제가 번영함에 따라 날로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1950년 내몽골자치구도서관이 건립되었다. 자치구도서관이 건립된 뒤를 이어 자치구에 속하는 7개 맹과 두개 시의 소재지에서도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였으며 일부 현과 기의 문화관에서도 도서실을 꾸렸다. 1954년 9월에는 광서좡족자치구 제2도서관이 성립되었다. 1955년 2월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도서관이 성립되었으며 얼마되지 않아 연변조선족자치주도서관에서는 《모든것을 당에 바쳐》라는 책에 대한 조선말독서보고회를 가졌다. 1956년에는 운남성 대리주도서관과 내몽골 흑호트시도서관이 성립되었다. 1957년 9월에 신강성립도서관을 신강위글족자치구도서관으로 고치었는데 장서수량은 약 9만책에 달하였으며 그중 12개 민족문자로 된 도서는 2만여책이나 되었다. 그들은 대출처와 열람실을 개방하였으며 간부수자를 19명으로 증가하였다. 1958년 10월에 녜하회족자치구에서 구도서관을 꾸리기 시작하였으며 1959년 2월에는 광서좡족자치구문화궁에서 현과 시 도서관인원들의 실무훈련반을 꾸려 72명의 실무인원을 양성하였다. 이 시기 민

족지구도서관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과학, 문화, 교육의 기구로 되어 민족지구의 혁명과 생산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각지 민족도서관들에서는 각항 규칙제도를 건립하였으며 《도서저장고》의 작풍을 개변하였고 도서류동소를 건립하여 여러 민족의 문자로 된 책을 공장, 농촌, 학교, 가두에 보내주어 주동적으로 광범한 인민대중을 위해 봉사하였다.

60년대에 들어서서 민족지구도서관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었으며 활동의 형식과 내용은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웠다. 1960년 3월에 우룸치지구도서관과의학교가 정식으로 개학을 하여 39개의 도서관과 자료실의 93명의 재직간부가 이 학습반에 참가하게 되었다. 1960년 10월에 녕하도서관에서 《모택동선집제4권학습자료색인》을 편찬하였다. 1962년 내물골도서관에서 몽골문부를 내와 몽골족인민과 몽골족어문지식을 소유한 광범한 독자들의 학습과 공작, 과학연구에 리용하게 하였다.

그후 10년동안기간에 민족지구도서관사업은 럽표, 《4인무리》의 엄중한 파괴를 받았다. 《4인무리》 일당들은 《조선족언어의 수명은 길어야 10년 내지 15년》이라고 부르짖으면서 기관사무에 조선족언어문자를 사용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지어 신문사, 방송국에서도 조선족문자로서 원고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였다. 지구도서관사업은 취소당하다싶이 되었으며 소수민족간부와 군중들에게 《민족분렬》, 《매국역적》 등 억울한 루명을 들켜왔고 일부 사람들의 목숨마저 빼앗아갔다. 도서관은 문을 봉하였고 소수민족도서관은 없애치우다싶이 되었었다.

《4인무리》가 분쇄된후 특히는 당의 3중전회이래에 우리 나라 소수민족도서관사업은 지도사상면에서 점차적으로 혼란된것을 바로 잡게 되었으며 각 류형의 민족도서관도 륙속 회복되고 건립되었다. 1979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비교적규모가 큰 자치구도서관이 4개나 되었다. 신강, 칭해, 운남, 내물골 등 9개 성, 자치구에 26개의 민족자치주도서관이 있었으며 광서, 귀주, 칭해, 내물골 등 12개 성, 자치구에는 약 60여개의 민족자치현(구, 기) 도서관이 있었다. 이런 도서관들에서는 모두 선명한 민족특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러가지 민족문자로 된 도서들을 많이 저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도서들은 본 지구의 각족 인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였으며 생산과 과학연구에 일정한 기여를 하여 기꺼운 성적을 거두었다. 연변지구의 81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전 주의 9개의 공공도서관에는 83명의 사업인원이 있고 건축면적은 4,408평방메터로서 장서량은 52만책에 달하였다. 독자들의 류동차수는 19만7천책에 달하였으며 구입해 들여온 도서는 5만4천책, 잡지는 2,712종으로서 그 금액은 6만8천원에 달하였다. 당과 정부의 다함없는 배려와 지지하에 전 주의 도서관사업은 날로 흥성발전하게 되었다. 지금 주도서관, 안도현과 훈춘현도서관에서는 재집을 지을 예정이다.

민족지구도서관학의 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광범한 도서관사업인원들의 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중국도서관학회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1979년 신강, 녕하, 내물골자치구에서는 도서관학회를 내왔다. 1980년 11월 신강도서관학회에서는 우룸치에서 한차례의 회의를 가지었는데 공공도서관, 학교, 과학연구계통의 도서관회원의 대표와 요청에 의해 온 대표 69명이 참석하여 3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1981년 9월 내물골에서 화북지구도서관협회회의와 공공도서관독자사업토론회회의를 하였다. 문화부도서관관리국이 성립된 후 소수민족지구도서관사업은 더욱 큰 중시를 받게 되었다. 국가도서관 부관장 정지강동지는 1981년 11월 26일 연변지구에 와서 4일간 시찰을 하면서 국의

고찰에 대한 학술보고를 하였다. 그는 민족지구도서관사업의 특수성을 강조하고나서 민족지구도서관을 잘 꾸리라고 면려하였다.

총적으로 우리 나라 소수민족지구 도서관사업은 굴곡적인 길을 걸어왔으며 역경 속에서 발전하고 전진하였으며 강대해졌다. 그러나 소수민족지구는 조국의 변강에 자리잡고있어 아직까지 경제가 낙후하고 문화교육사업이 발달하지 못한 등 객관조건으로 하여 도서관사업도 발전단계에 처하여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전반 도서관부문들에서는 중시를 돌리고 적극적인 방조와 지지가 있어야 한다.

민족지구의 특점에 근거하여 민족특색을 가진 도서관을 꾸려야 한다.

소수민족지구 도서관사업의 새 국면을 개척하자면 반드시 소수민족지구의 실지로부터 출발하여 민족의 특점과 지구의 특점을 고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목전 소수민족도서관을 놓고볼때 아래와 같은 다섯개 방면의 특점을 가지고있다.

첫째, 구역면에서의 특수성

민족지구도서관의 특수성은 그 지구의 특점을 가지고있는데 있다. 우리 나라는 다민족의 사회주의국가로서 전국에 5개의 자치구와 30개 자치주, 72개의 자치현이 있다. 여러 민족이 자치를 실시하고있는 구역은 전국 총면적의 백분의 60을 차지한다. 거기에는 풍부한 산림과 초원, 광산, 수력 등 자원이 있어 우리 나라 현대화건설에서 두터운 물질기초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의 육지변방선의 길이는 2만1천 킬로미터인데 그 대부분은 소수민족지구에 속해 있다. 이렇게 놓고보면 소수민족이 접거하고있는 지구는 거의다 변강지구이며 전략상의 요지로서 변강자체의 특점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민족지구도서관사업도 반드시 변강지구라는 특점을 고려한 기초상에서 전반지구의 도서관건설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민족구역이 존재하고있는 만큼 반드시 민족지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수면을 고려하여 나라에서는 《반드시 전국의 역량에 의거하고 국가의 역량과 중앙의 역량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주총리의 지시대로 민족지구도서관을 대하여야 하며 중점적으로 돌봐주고 인원과 편제 및 도서경비 등 여러면에서 적당히 증가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이 민족지구의 광범한 독자들이 더욱 풍부한 문화생활을 누릴수 있으며 변강인민들이 변강에 자리잡고 변강을 건설하며 공고히 하는데 리로울것이다.

둘째, 민족적특점에서의 중요성

민족의 특점으로 보아 민족지구도서관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50여개의 소수민족이 살고있으며 그 인구는 약 5천6백만에 달한다. 그들은 조국을 열애하고 공산당을 열애하며 근로용감하며 높은 지혜를 지니고있다. 소수민족인민들은 장기간의 력사발전가운데서 한족인민과 손잡고 공동히 위대한 사회주의조국을 세웠으며 우리 나라의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였다. 우리 나라 변방지구의 대부분은 소수민족들이 접거하고있는 곳으로서 20개~30개 민족은 국경을 넘어서 변강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에도 그 민족이 있기에 누가 누구를 영향주는가 하는 문제들이 존재하고있다. 이와같이 변강지구는 민족문제와 변방문제가 한데 련결되어있어 민족지구도서관을 발전시키는 이 문제는 중대한 전략적의의와 현실적의의가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적특색이 있는 변강지구도서관을 잘 꾸리는것은 소수민족의 문화발전에

관계되며 소수민족간부와 과학기술인재의 양성 및 구역의 문화발전과 경제건설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구역적범위에서 관계될 뿐만아니라 나아가서는 조국의 《4개현대화》건설 및 조국의 통일과 안정단결의 전반 문제에 관계되고있다. 때문에 소수민족 도서관사업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로 되는것이다.

셋째. 언어문자면에서의 치중성

민족지구도서관의 장서건설은 언어문자면에서의 치중성을 띠어야 한다. 민족문자로 된 도서에 대한 사업은 소수민족지구도서관사업에서 하나의 기본측면으로 되어야 한다. 모든 소수민족은 자기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민족의 문자로서 책과 간행물을 출판할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민족지구에서는 각 류형의 도서관의 특점과 성질 및 의무에 근거하여 장서건설에서 본 민족의 문자로 된 도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 전국적범위내에서 본민족의 언어문자로 출판된 도서와 자료를 계통별로 잘 수집하여야 한다.

(2) 변경지구의 지방자료를 잘 수집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발전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3) 학교, 기관, 과학연구단위 내부에서 출판한 본 민족의 문자로 된 도서와 자료를 잘 수집하여 도서관의 장서건설을 풍부히 해야 한다.

(4) 당의 《외국의것을 중국에 리용》하는 원칙에 좇아 본 민족의 문자로 된 국외의 도서를 들여오며 교환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4개 방면의 문제는 민족지구도서관 장서건설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특점들이다. 연길시 도서관을 실패로 든다면 장서의 중점은 조선문으로 된 도서에 있는데 장서총수는 23만책으로서 그중 한문도서가 20만책에 달하여 장서총수의 86.9%를 차지하고있다. 민족문자로 된 도서는 3만책으로서 장서총수의 13.4%밖에 되지 않는다. 판내의 잡지총수는 460종인데 한문잡지가 450종으로서 잡지총수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나 조문잡지는 35종으로 잡지총수의 7.6%밖에 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소수민족지구도서관의 장서건설에서 한문으로 된 도서가 많고 민족문자로 된 도서는 아주 적다. 그러나 민족문자로 된 도서도 일정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민족지구 각 류형도서관의 보편적인 규률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민족지구도서관은 민족문자로 된 도서의 출판량과 품종이 적고 장서량이 적으나 독자가 많고 수요량이 많은 특점에 근거하여 실지정황으로부터 장서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장서건설에서의 치중점은 의연히 본민족의 문자로 된 도서와 자료에 두고 기타 민족의 문자로 된 도서는 적당히 구입하여 여러 민족독자들을 위해서 잘 복무해야 한다.

네째. 독자대오의 광범성

독자대오의 구성으로 놓고 볼 때 민족지구도서관의 독자대오는 매우 광범하다. 민족지구는 소수민족들이 집거하고있는만큼 도서관의 독자대오도 소수민족독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있다. 연길시도서관을 본다면 1981년도의 기본독자수는 (대출중이 있는 독자) 2,302명인데 그중 조선족이 1,176명, 만족 12명, 회족 8명이고 한족은 1,106명으로서 소수민족독자수는 전반 기본독자수의 51.9%를 차지하고있다. 이로부터 볼수있는바 민족지구도서관의 독자대오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었으며 범위는 비교

적 너르다. 때문에 독자들의 특점을 참답게 연구하고 소수민족독자들에게 대한 봉사사업을 잘 하는것은 소수민족지구 공공도서관일군들앞에 나선 한낱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다섯째. 간부대오건설의 절박성

간부들의 현상태를 놓고 보아 민족지구도서관에서는 대오건설을 시급히 틀어쥐어야 한다. 레닌께서는 《오직 도서관인원들의 정황——즉 물질과 정신상에서의 정황이 개선을 가져왔을 때만이 도서관인원에 대한 훈련사업이 성과를 거둘수 있다》라고 지적하시였다. 레닌동지의 말씀대로 우리 소수민족도서관사업의 막후한 상태를 개편하려면 일정한 과학문화수준을 가진 민족간부들을 많이 훈련하고 배양해야 한다. 우리의 민족간부는 본민족의 대중속에서 오는것만큼 본민족의 언어문자와 풍속습관에 대해 익숙하며 자기 민족과 자기 지구의 특점을 잘 알고있다. 민족간부를 대략적으로 배양하는것은 시대발전의 필연적인 추세로서 당의 민족정책을 시달하는 문제와 관련되며 소수민족도서관을 잘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의 관건적인 문제로 되고있다. 연변지구를 놓고 본다면 전 주의 공공도서관은 83명의 사업인원이 있는데 오랜 사업인원은 아주 적고 새로 들어온 사업인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있다. 그들중 대다수가 다른 일터에서 전근되어 왔다. 이들의 문화수준은 대다수가 고중, 초중정도이고 대학을 나온 사람은 아주 적으며 도서관실무훈련을 받은 사람은 더욱 적다. 연령을 놓고 보면 모두가 35세이하로서 《문화대혁명》후에 분배받아 오거나 전근되어 왔다. 그러나 도서관실무에 경험이 있는 오랜 사업인원은 모두 45세이상으로서 곧 퇴직, 리직하게 되어 이어나갈수 없는 형편에 처해있다. 그러므로 목전 소수민족지구도서관의 간부대오에 대한 배양사업은 매우 절박하며 백년대계로서 지금부터 참답게 틀어쥐어야 한다.

소수민족지구도서관사업의 전망.

우리 나라 소수민족지구를 고도로 되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가진 민족지구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민족지구도서관사업을 신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소수민족지구도서관사업을 발전시켜 소수민족의 과학문화수준을 제고시킬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래 다섯개 방면으로 말하려고 한다.

첫째. 소수민족의 문자로 된 도서출판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조사한데 의하면 당전 소수민족독자들의 한어수준은 그리 높지 못하기에 자기민족의 문자로 된 도서가 많이 출판될것을 기대하고있다. 그러므로 민족도서출판사업을 강화하고 참답게 틀어쥐어야 한다.

소수민족문자로 된 도서출판사업을 개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민족사무위원회와 국가출판사업관리국에서는 1980년 11월에 북경에서 전국소수민족문자출판사업좌담회를 가지였다. 새 중국이 건립된 후 민족출판사업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큰 발전을 가져왔으며 전반 출판사업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28년간 19종의 민족문자로 된 책 3만여종을 출판하고 5억여책이나 적었었다. 특히는 《4인무리》가 분쇄된 후 이 방면의 사업은 새로운 기상이 나타났다. 전국 17개의 출판사에서 소수민족문자로 된 책을 출판할 임무를 담당하고있는데 천여명에 가까운 편집인원과 번역인원이 있다. 매년 출판되는 책은 1,500여종으로서 2,700여만책을 적어내고있다. 소수민족지구출판사업의 관건은 민족문예창작활동을 벌려 적극적으로 민족풍속과 민족

특색을 가진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것이다. 이 방면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민족사무위원회와 중국작가협회에서는 1981년 12월에 연합으로 전국소수민족문학창작수상의식을 가지었는데 38개 민족의 138명의 작가와 104편(수)의 작품이 평선되어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의식은 우리 나라 역사상에서 처음으로 있는 활동이다.

총적으로 우리 나라의 민족출판사업은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민족지구의 4개현대화건설의 요구에 비길 때 발걸음이 뜨며 독자들의 수요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형제발전의 요구에도 적응되지 않고있다. 우리는 마땅히 경험을 참답게 총화하고 창작대오와 편집, 번역대오의 건설을 잘 틀어쥐어 민족문자로 된 도서를 많이 출판하기에 노력하며 민족지구도서관을 잘 꾸리어 변강지구의 사회주의정신문명과 물질문명건설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둘째, 민족지구도서관법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1981년 국가 통계국의 통계에 의하면 목전 우리 나라에는 1,787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그중 소수민족지구도서관은 5%를 차지하고있다. 이 수자로 볼때 우리 나라 소수민족지구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낮다. 그러나 민족지구도서관은 전략적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처해있다. 민족지구의 도서관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족지구도서관법을 제정하고 연구하여야 하는데 이는 심원한 현실적의의를 가지고있다. 우리에게 민족지구도서관법이 있으면 규정대로 일을 치사할수 있어 우리의 사업이 순리롭게 진행되도록 담보할수 있는것이다. 국가주관부문에서는 참답게 조사하고 연구하여 소수민족지구에 합당한 도서관법(혹은조례)을 제정할것을 건의한다.

금년 4월에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헌법개정초안》제3장 6절 11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당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성에 따라 자치조례 및 단항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 규정은 우리가 민족지구도서관법을 제정하는 의거로 될수 있다. 이로부터 볼수 있는바 도서관법은 국가도서관법의 구성부분으로서 국가도서관법의 조례에다 민족지구도서관에 련관되는 문제들을 법률적형식으로 규정하거나 단항조례를 제정할수 있다.

소수민족지구도서관법은 반드시 명확성과 엄밀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1980년에 제정한 《연변조선족자치주조례(초안)》제12장 13조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다. 《자치주 주장은 조선족공민이 담당한다. 부주장, 비서장, 국장, 위원회주임가운데서 조선족간부가 3부의 2이하여서는 안된다》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민족구역자치실시요강》중에서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지구에 반드시 간부민족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에 근거한것이며 연변의 구체적실정에 근거하여 규정한것이다. 이 조례는 우리가 민족지구도서관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적당히 참작할수 있는 의거로 된다.

소수민족지구도서관법은 민족의 특점과 지구의 특점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몇개 방면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당에서 민족지구도서관사업에 대한 총적방침과 지도사상면에 관한 문제,
- (2) 민족지구도서관사업인원의 편제 및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 (3) 민족지구도서관의 간부배비와 구체적조건 및 요구,
- (4) 민족지구도서관과 국제도서관(외국)간의 도서교류사업의 구체적인 규정 및 요구,
- (5) 민족지구도서관의 장서건설과 독자대오 및 복사방식 등이다.